

19년차 아이돌 신화 '옴파탈' 매력까지 장착

〈homme fatale·치명적 남성〉



13집 '언체인징-터치' 발표... 발라드·댄스곡 등 다양하게 수록

“정규 13집의 ‘파트 1’은 팬들을 위한 스위트한 곡들로 구성했다면, 이번 메인 앨범은 ‘파트 1’보다 세련되고 고급스러운 곡으로 전체적인 밸런스를 맞춰줬어요.”

그들 신화의 민우는 정규 13집 ‘13TH 언체인징-터치’(13TH UNCHANGING-TOUCH)에 대해 “솔로 곡이 아니라 6명이 함께 불러야 하는 만큼 전체적인 밸런스에 비중을 뒀다”고 설명했다.

신화는 지난 11월 13집의 예고편 격인 ‘신화 13 언체인징 파트 1-오렌지’(SHINHWA 13 UNCHANGING PART 1-ORANGE)를 발표한 데 이어 2일 0시 정규 13집 메인 앨범을 발표했다. 2015년 2월 발표한 정규 12집 ‘위’(We) 이후로 거의 2년 만의 컴백이다.

이번 메인 앨범에는 타이틀곡 ‘터치’(Touch)를 비롯해 서정적인 멜로디의 발라드곡 ‘헤븐’(HEAVEN), 힙합과 록의 조화가 매력적인 댄스곡 ‘슈퍼 파워’(SUPER POWER) 등 5곡의 신곡과 ‘파트 1’ 수록곡 등 총 10곡이 담겼다.

지난 1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만난 신화의 여섯 멤버 김동찬, 신혜성, 전진, 예리, 이민우, 앤디에게서는 데뷔 19년 차를 맞이하는 가수의 여유로움과 멋스러움이 느껴졌다.

이번 앨범은 타이틀곡부터 원숙미가 물씬 풍긴다. ‘터치’는 감각적 멜로디와 보컬의 조화가 돋보이는 퓨처 베이스(Future Bass) 장르의 곡으로 작곡가 김도현과 작사가 김이나의 조합으로 발표 전부터 관심을 끌었다.

동완은 특히 ‘터치’의 노랫말에 대해 “김이나 씨는 정말 연구를 많이 하는 것 같다”며 “멤버들 개성을 일일이 고려한 가사”라고 평했다.

민우 역시 “김이나 씨의 가사는 구도가 잘 잡혀 있다”면서 “그렇게 계산된 가사들이 막상 노래를 불러보면 곡에 잘 안 붙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노래는 예외”라고 호평했다.

장르적으로는 가장 트렌디한 퓨처 베이스 사운드를 선보이면서도 ‘터치’는 헤어진 연인들의 후회와 미련, 아픔의 감정을 애뜻하게 담아냈다.

예리는 “타이틀 곡을 고를 때 실은 ‘슈퍼파워’와 ‘터치’를 두고 멤버들의 의견이 3대3으로 갈렸다”며 “오렌지에 겨울 활동이니 시도해보자 않은 감성적인 곡을 시도해보자고 해서 결국 ‘터치’를 골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노랫말에 맞춰 무지비디오도 불안 불안하면서도 치명적인 느낌으로 제작했다”며 “이별에 대한 아픔을 ‘옴파탈’(homme fatale·치명적 남성) 느낌으로 담아보고자 했다”고 밝혔다.

예리에 이어 민우는 “원초적 ‘집중남’ 느낌이 아닌 일부러 드러내지 않아도 은근히 드러나는, 나이에 걸맞은 세시함”이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른바 ‘군무돌’의 시초이자 ‘집중돌’의 원조로 불렸던 그들이기에 안무에 대한 고민도 적지 않았다.

“때로 안무를 하면서 요즘 아이돌 그룹과 비교되지 않을까 고민도 해요. (웃음) 하지만 ‘너무 열심히 힘줘서 하지 않아도 풍기는 맛이 있다’는 말에서 용기를 얻고 자신감을 얻죠.”(동완)

1998년 데뷔한 신화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그룹의 해체, 멤버의 교체나 탈퇴가 없는 국내 최장수 아이돌 그룹이다. 또 13장의 정규앨범으로 국내 댄스그룹 가운데 최다 정규앨범 발매 기록을 세우기도 했다. 하지만 발표한 앨범이 쌓일수록 새로움에 대한 부담이 커지는 것도 사실이다.

앤디는 “매번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멤버들이 쏟는 시간이 정말 많다”면서 “하지만 고민스러운 만큼 새 앨범에 대한 뿌듯함도 크다”고 말했다.

또 멤버들은 장수 아이돌 그룹의 비결도 털어놓았다.

예리는 “단체 생활을 하면 의견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면서도 “하지만 대립하고 갈등할 때 항상 중재하는 멤버들이 있다. 갈등을 풀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중재를 가장 잘하는 멤버가 누구인지 묻자 멤버들은 한목소리로 전진을 꼽았다.

한편 신화는 다음 달 ‘2017 신화 라이브 언체인징’(2017 SHINHWA LIVE UNCHANGING) 투어를 통해 팬들을 만난다. 2월4일 대만 공연을 시작으로 11일 부산, 25일 대구에서 콘서트를 열 계획이다. /연합뉴스

“췌언니? ‘줌마크러쉬’ 보여드려요”

고소영 ‘완벽한 아내’로 10년만에 안방 복귀

배우 고소영(44)이 오는 2월 방송되는 KBS 2TV 새 월화드라마 ‘완벽한 아내’를 통해 10년 만에 안방극장에 복귀한다고 KBS가 2일 밝혔다.

고소영은 극 중 주부 심재복 역을 맡아 힘든 일터에서도 자신보다 우선순위를 가족을 위해 약삭같이 버티었지만 질생김 남편의 외도로 미스터리한 사건에 휘말리며 위기에 봉착, 고군분투하며 울고 웃는 ‘대한민국 아줌마’를 대변할 예정이다.

2010년 배우 장동건과 결혼한 후 두 아이의 엄마가 되기도 한 고소영은 보통의 존재인 아줌마가 자신이 원하고 꿈꾸던 것을 찾아가는 과정에 깊이 공감해 출연을 결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영은 또 할 말은 하고 사는 화통한 성격부터 아내와 엄마로서 느끼는 감정까지 많은 것이 많은 심재복 캐릭터에 애정을 느껴 10년 만에 복귀를 결정했다고 KBS가 전했다.

제작진은 “아줌마로 대변되는 누군가의 아내 혹은 엄마뿐만 아니라, 자신이 진짜 원하는 것을 갖고 살아가던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드라마”라며 “최악이라고 생각한 순간 새로운 인생을 꿈꾸게 된 재복의 어드벤처를 통해 통쾌한 웃음과 에너지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완벽한 아내’는 ‘공부의 신’, ‘브레인’, ‘부탁해요 엄마’ 등을 쓴 윤경아 작가와 ‘메리는 외박 중’, ‘힘내요, 미스터 김!’, ‘골든 크로스’를 연출한 홍석구 감독이 의기투합해 만드는 작품이다. /연합뉴스



소찬휘-스트릿건즈 로이, 법적 부부 됐다

혼인신고 마쳐... 3~4월 결혼식 예정

가수 소찬휘(본명 김경희·45)가 6살 연하의 밴드 스트릿건즈 멤버 로이(본명 김경울·39)와 올봄 결혼한다. 두 사람은 한 달 전 혼인신고를 마쳐 법적으로는 이미 부부이다.

결혼식 일정에 대해서는 “스트릿건즈가 1월16일부터 해외 투어를 들고 소찬휘 씨가 3월에 전국투어가 끝나면 앨범이 바로 나오어서 3~4월께로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두 사람은 3년 전부터 알았으며 스트릿건즈가 소찬휘의 소속사로 합류하면서 친분을 쌓았다. 이어 2014년 함께 발표한 앨범 ‘네오 로커빌리 시즌’을 작업하고 공연하면서 연인으로 발전했다.

폭발적인 고음이 매력인 소찬휘는 1996년 데뷔해 ‘티어스’, ‘현명한 선택’, ‘해어지는 기회’ 등의 히트곡을 냈다. 로이는 2003년 스트릿건즈의 전신인 밴드 락타이거즈로 데뷔했다.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3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언제나 봄날)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TV블로그 꿈지락 30 아침연속극 (아침 소리 강남구)
9	30 KBS 뉴스	00 TV 소설 (저 하늘에 태양이) 40 여유 만만	30 MBC 생활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구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방학특선 서가식당(재) 50 한국인의 팔도밥상 스페셜	00 월화드라마 <화랑> (재)	00 월화드라마 <불아성> (재)	00 아빠가 들려주는 이야기 특독 30 꾸러기 탐구생활
12	00 KBS 뉴스 12	00 생생정보 스페셜 40 살림하는 남자들 (재)	00 MBC 정오뉴스 20 TV속의 TV	00 SBS 12뉴스 30 KBC 12뉴스 50 TV블로그 꿈지락 55 세상발견 유레카
1	00 슈퍼 미래유산 100년 후 보물찾기 05 KBS네트워킹특선 뮤직토코쇼 가요1번지 55 별별가족(재)		20 문화사색(재)	55 닥터 365
2	00 생로병사의 비밀(재) 55 세계는 지금 스페셜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05 내꺼야 풀록 30 꾸러기 식사교실	00 2시, 뉴스브리핑
3	05 특집다큐 신성장동력, 핀테크별별가족 55 튜튼생활체조	00 자동차부채상 위키2 30 TV 유치원	00 MBC 뉴스 10 뚝? 뚝! 키즈스쿨 55 응까소나타2	00 영재발굴단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재)	2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재)	00 4시, 뉴스브리핑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제보자들(재)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오뉴스 50 KBC저녁 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클럽 우리 사는 세상	00 KBS 뉴스타임 20 2TV 생생정보	20 생방송 빛날	05 날씨와 생활 10 닥터365 15 고강건문록 남도에 살아라!
7	00 KBS 뉴스7 35 시사현장 맥	50 일일드라마 <다시, 첫사랑>	15 일일연속극 <행복을 주는 사람> 55 MBC 뉴스데스크	15 TV블로그 꿈지락 20 일일드라마 <사랑은 방울방울>
8	00 집중인터뷰 이사람 25 빛나라 은수	30 글로벌 24 55 1대100	55 MBC 일일특별기획 <황금주머니>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본격연예 한밤
9	00 KBS 뉴스9		30 리얼스토리 논	
10	00 평창동계올림픽 특집다큐 눈, 길 청년 김마그너스의 도전	00 월화드라마 <화랑>	00 월화드라마 <불아성>	00 월화드라마 <남민덕터 김사부>
11	00 KBS 뉴스라인 40 콘서트 필	10 살림하는 남자들	10 신년특집 PD수첩	10 불타는 청춘
12	30 신년기획 디렉터스컷 슈퍼아시아	35 스포츠 하이라이트	05 MBC 뉴스24 15 MBC 100분 토론	30 나이트 라인

EBS 1	
05:00 EBSe 생활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카피드벤처 - 2부 과테말라)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토마토 달걀찜과 돼지고기 고추장볶음)
06:00 한국기행(재) 06:20 세계테마기행(재) 07:00 레이디 비그 07:30 로보카 폴리 07:45 꼬마버스 타요 08:00 덩동당 유치원1~2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09:15 출동! 슈퍼왕스 09:30 이암! 스페이스 정글 09:40 부모 <위대한 엄마>(재)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미스터리 휴먼 다크(재) 12:40 지식채널e 12:45 숨은 한국 찾기(재) 13:35 뷰티풀 코리아 (나의 나라, 은빛 평창) 13:40 즐거운 수학 EBS MATH 13:50 그림을 그려요? 13:55 캐니멀
	14:25 정글에서 살아남기(재) 14:55 모피와 친구들 15:05 피터 래빗 15:20 우주탐험가 췌 15:35 오솔 상지2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부릉부릉 브루미즈(재) 16:45 덩동당 유치원1~2(재) 17:30 로보카 폴리(재) 17:45 꼬마버스 타요(재) 18:00 생방송 특특! 보니하니1~4 19:00 소피 루비 19:30 EBS뉴스
	19:50 극한직업 20:40 다큐 오늘 (꿈꾸는 아이들의 보트 학교) 20:50 세계테마기행 <알로하! 하와이 2부 볼의 신화 찾아서, 빅아일랜드> 21:30 한국기행 <북맞이 기행 2부 그 바다에 정우가 산다> 21:50 EBS 다크프라이 <절망을 이기는 철학:제자백가> 22:45 리얼극장-행복 23:35 미스터리 휴먼 다크 24:05 세상의 모든 법칙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1월 3일(음 12월 6일 庚寅)

子	48년생 조급한 데 버터 낸다면 견고해질 것이다. 60년생 중심이 되는 부분부터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72년생 재물운이 좋아질 것이니 기회가 오면 의심하지 말고 수용하라. 84년생 어느 한 순간에 급속히 변화하고자 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90, 33	午	42년생 나중에 자리를 잡는다. 54년생 지금 확실해 해 뒤야 할 필요가 있다. 66년생 의심스런 인연이니 경계심을 버리지 말라. 78년생 제안사가 불리하니 차분하게 대비하라. 90년생 합리적 이아아 설득력을 갖는다. 행운의 숫자 : 61, 75
丑	49년생 대범하게 행동했을 때 수확도 클 것이다. 61년생 주장하는 것보다는 수용하는 편이 훨씬 낫다. 73년생 가운데에 거어서 곤혹스러울 수도 있다. 85년생 확대 해석하거나 조기 판단하면 곤란하다. 행운의 숫자 : 73, 37	未	43년생 경계할 필요가 있다. 55년생 놔두자니 거주장소도 버리지나 아까울 것이다. 67년생 문제점이 보이지는 않으나 마음 놓고 지내도 된다. 79년생 기대하지 않음이 좋다. 91년생 특별히 꼭 집어서 강조해 둘 필요가 있느니라. 행운의 숫자 : 34, 87
寅	50년생 활동만 절한다면 대박이 날수 있다. 62년생 새로운 인연은 길사를 도모하는 동반자가 되리라. 74년생 최후의 결정은 자신이 직접 내리는 것이 좋다. 86년생 결정적인 시기가 도래하고 있으니 수용할 준비를 하자. 행운의 숫자 : 22, 55	申	44년생 핵심을 짚어 주어야 할 때가 되었다. 56년생 더불어 살아 가고자 하는 삶의 지혜가 필요하다. 68년생 사소한 것에 집착하면 대국을 망친다. 80년생 절실한 것에 대한 언급이 있으리라. 행운의 숫자 : 43, 85
卯	51년생 낮추면 높아질 것이요, 비우면 반드시 채워지리라. 63년생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미루면 대히 불리해진다. 75년생 발전을 도모하는데 소홀해서는 아니 되겠다. 87년생 돈보일 것이다. 행운의 숫자 : 36, 65	酉	45년생 지금의 관도가 무방해했다. 57년생 지금부터라도 미리 대비하지 않는다면 부작용에 의한 피해를 볼 수도 있다. 69년생 아무런 장애도 없으니 속도를 내어도 되겠다. 81년생 무난한 결과에 이르렀다. 행운의 숫자 : 15, 24
辰	52년생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니 함께하는 것도 괜찮다. 64년생 중요함을 놓칠 수도 있는 운수이다. 76년생 관세에 맞지 않는다 면 부작용만 속출한다. 88년생 바빠서 시간을 쪼개어 쓰느라고 애를 먹겠다. 행운의 숫자 : 89, 17	戌	46년생 안전하지 못한 양태이니 밤잠하지 말고 즉시 조치해야 한다. 58년생 지난날 언행 했던 바의 결과가 나타날 수 있는 날 이니라. 70년생 의외의 행운이 들어올 수다. 82년생 자신감을 가지고 밀어붙인다면 성취할 수 있다. 행운의 숫자 : 09, 56
巳	53년생 여태까지 했던 것은 헛수고였으니 다시 해야겠다. 65년생 소구쳐 오르는 기세의 운이다. 77년생 대단하기는 하지만 자신과의 인연은 박할 것이니라. 89년생 실효적인 관계를 지속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행운의 숫자 : 04, 18	亥	47년생 많이 모여 있는 곳에 가지 말라. 59년생 진행 과정이 총 실했다 하더라도 마무리까지 끝까지 성사되리라. 71년생 도중에 찬물을 끼얹었으면 이가 나타날 수 있다. 83년생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밝히면 그만이다. 행운의 숫자 : 92, 57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원영” ☎010-9790-8237